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 연 희

(대구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영향요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밝히고,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실천 개입전략과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별, 학업성취역량 인식, 자아존중감,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같은 개인내적 특성이 학교중도탈락의 주요 영향요인이며, 부모 양육의 질, 또래애착, 가족의 경제수준, 정착기간 등의 환경적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기여, 실천·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청소년, 학교중도탈락, 중도탈락영향요인

1. 서론

최근 몇 년간 가족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규모 또한 증가하여 2009년 1월 현재 20세 이하는 2,408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6%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09).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기초적인 사회적응문제에 이어, 학업 성취와 순조로운 진학 및 진로이행의 문제가 북한이탈주민 연구 및 서비스지원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은 높은 중도탈락률이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청소년의 중학교 취학률은 51.2%이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18.9%에 그치고 있다. 남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98%, 대학 진학률이 80%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이탈청소년의 낮은 취학률은 이후 이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에 문제를 예측하게 한다(교

* 이 연구는 2006년 대구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육과과학기술부, 2008).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의 교육체계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탈락하게 될 때, 이들 개인차원에서 단기적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 중도탈락은 개인차원에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외에도 가출, 비행, 범죄 등의 각종 청소년 문제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예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도탈락청소년의 범죄율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중도탈락청소년 범죄자의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00).

학교중도탈락의 장기적, 거시적 영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 중도탈락자가 전체 기초수급대상가구주의 52%를 차지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연간 소득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odgkinson, 1998, Davis & Dupper, 2004에서 재인용). 학교 중도탈락은 신체건강, 알코올·마약, 자살율과 같은 정신질환 유병률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rton, 1998; Vallerand, Fortier & Guay, 1997, 문은식, 2006에서 재인용, Rumberger, 2004). 그 결과, 학교중도탈락은 사회전체 소득의 저하, 실업률 증가, 세수 감소,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같은 경제·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ichman, Bowen, & Wooley, 2004). 이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부적응의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높은 중도탈락률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적인 빈곤과 의존의 문제를 가져오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강창호, 2000; 이기영, 2002;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김미숙, 2004;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외, 2004; 정향진, 2005; 박윤숙·윤인진, 2007)은 조사대상이 갖는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 중심 혹은 질적 접근을 하였거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소수학교나 대안학교를 위주로 하는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 또 남한학교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와 남한학생과의 학력 차이 수준 등에 초점을 두는 기술적 연구에 그치고 있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중도탈락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 분석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의 구체적인 결과이며 다양한 사회문제의 선행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중도탈락이란 현상에 기여하는 제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학교중도탈락이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도탈락학생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모수를 규정하고, 또 충분한 대상을 표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학교중도탈락의 대리변수로 학교중도탈락의도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청소년 중도탈락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²⁾

1) 국내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DB인 DBpia와 KISS를 통한 1990년 이후 발표자료 검색 결과 학교중도탈락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물은 없었다.

2)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실행 의도는 행동화를 예측하는

2.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청소년과 이주/난민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 선행연구

〈표 1〉에서 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평균 중도탈락률은 6.1%, 고등학생의 탈락률은 14.2%로 이는 남한학생 중도탈락률의 4-8배에 달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북한이탈청소년 일반학교 중도탈락 현황('07 기준)

(단위: 명)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08년 재학생 수 | 495 | 288 | 183 | 966 |
| 중도 탈락생 | 7 | 26 | 26 | 59 |
| 중도탈락률(%) | 1.4 | 9.0 | 14.2 | 6.1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4

학교중도탈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행동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고립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련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Brooks-Gunn, Guo, and Furstenberg, 1993; Alexander, Entwisle and Kabbani, 2001). 한 교육보호 담당관에 의하면 북한이탈청소년이 학업의 어려움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학교를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드물며, 개인내적, 환경적 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고 하였다(교육보호담당관 개인 면접). 따라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학교중도탈락에 어떠한 요인들이 기여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중도탈락 청소년들과 잠재적 중도탈락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북한이탈청소년들과 국외의 이주/난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학교중도탈락행동의 영향요인들은 아래와 같다.

(1) 손상된 자존감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이전의 경험과 환경적 영향들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사회적 혼란과 탈북과정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하였다. 그 이외에도 기아, 폭력, 감금, 범죄 등에 노출되어 정신

주된 변인이라고 하며, 여러 실증적 연구들의 메타분석에서 그 설명력이 입증되었다(Sheeran & Orbell, 1999, Fife-Schaw, Sheeran & Norman, 2007, 김금미·정혜숙·정경아, 2007).

적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숫자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금명자 외, 2004; 이기영, 2002).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상실과 외상 경험은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성장기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신체발육부진도 부정적인 자아상과 열등감 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향규, 2006).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요인들과 남한 학교에서 학업부진문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며, 이는 자존감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병호 외, 2006; 이향규, 2006; 문성호, 2005; 김미숙, 2004; 이기영, 2002).

난민/이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 또는 비행화는 학업능력 자체보다는 또래관계나 교사와 관계에서 주변인화(marginalization), 고립화의 경험, 교사의 낮은 기대 때문이라고 하였다(Sivan, Koch, Baier & Adiga, 1999; Wallitt, 2008). 이주/난민 청소년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언어·문화적 차이가 주변인화의 또 다른 이유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소수민족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에서도 소속감의 결여, 고립화라는 내면화된 자존감의 상실이 중도탈락의 주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Elmer & Pike, 1997).

(2) 부모-자녀 관계와 훈육 능력

이민자들에게 정착지에서 가족의 존재는 적응을 위한 주요 보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lair, 2000, Beiser and Hyman, 1997). 그러나 상당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미 북한에서나 탈북과정에 다양한 이유로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사회부적응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가효 외, 2003; 길은배·문성호, 2003). 가족이 있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경우도 많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부모와 적절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이상의 북한 부모들은 출생 후 탁아소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부모역할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는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유가효 외, 2003).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가 위에 언급된 이유들로 이미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기 쉬운데,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세대 간에 남한 문화에 동화하는 속도가 달라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심화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기영, 2002, Lee, 1988). 이에 더하여, 남한에서 성공을 갈망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만, 이중문화권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격려와 지도·감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부모와 갖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모의 지도·감독 능력이 이들 청소년의 자존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주·난민청소년의 학교적응 또는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들이 영향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다.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가족의 응집력, 부모-자녀 간 관계의 상호성(mutuality)(Kaplan et al., 2007),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의 표현 정도, 교육에 관한 가정과 학교의 가치의 일치여부, 부모의 지도·감독 능력(Sivan et al., 1999; Bhattacharya, 2000; Newman, Myers,

Newman, Lohman & Smith, 2000)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3)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제 3국에서 체류기간이 길었던 경우 학습공백기를 고려하여 실제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편성되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이 자기 나이의 학생들과 공부하는 경우는 4.8%에 불과하고 75%가 2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고, 심한 경우 6살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동급생과 연령의 차이가 있는데 문화적 차이까지 있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기영, 2002; 정병호 외, 2006; 이수연, 2008).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인해 신체적으로 왜소하다는 사실도 청소년기의 이들의 자아상과 또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이기영, 2002). 외상적 경험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성장과정에 적절한 지도감독이 없는 생활로 인해 형성된 공격성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아통제의 어려움도 사회적 관계 형성, 특히 또래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향규, 2006).

이주/난민 청소년들은 낮은 경제적 지위, 문화·언어 차이, 외상경험 등으로 인하여 또래들로부터 주변화를 경험하며 이는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도탈락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ivan et al., 1999). 빈곤이나 외상경험 등은 사소한 좌절 경험에도 공격성, 분노 표출을 하게하며, 이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비행집단과의 교우관계로 이어지고, 이는 학교 중도탈락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Goldberg, 1999; Nesman, 2007; Wallitt, 2008).

(4) 문화적응스트레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 문화에 대한 동경과 남한 문화로의 편입에 대한 선망이 있는가하면 동시에 문화적 충격과 이질감, 남한 또래들로부터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소외와 주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이기영, 2002; 유가효 외, 2003;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남북 간의 문화, 가치관, 행동 양식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소외, 정체감의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는 갈등 대처방식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재강화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내외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중도탈락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정병호 외, 2006; 정진경 외, 2004). 정착기간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 정착기간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캄보디아 난민 청소년들의 높은 학교 중도탈락률에 관한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집과 학교의 이중문화를 오가는 스트레스와, 보이지 않는 소수자(invisible minority)들로서 이들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과 교사들의 낮은 기대, 학내에서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과 같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 중도탈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itt, 2008; Elmer & Pike, 1997).

(5) 가족의 경제적 지위

이주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위는 이주지위(immigrant status)나 언어·문화적 차이와 함께 이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주변화와 고립을 경험하는 이유이며, 이는 학교적응 또는 중도탈락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ilvan et al., 1999). 난민청소년 중에는 가족이 빈곤하여 청소년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을 하거나 비행집단에 가입하게 되는 것도 학교 중도탈락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되었다(Goldberg, 1999; Wallitt, 2008).

2) 일반청소년 학교중도탈락 관련 선행연구

북한이탈청소년이나 이주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기술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일반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중도탈락의 주요영향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영향요인들은 크게 개인내적 특성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특성요인

청소년 중도탈락이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자기신뢰 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요인이며(윤옥경, 2008; 권순용·양연숙, 2007; 백혜정, 2007; 문은식, 2005; 양순미·유영주, 2003; 이훈진, 1999, 박현선, 1999), 반면 공격성과 같은 개인의 충동성 관련 변인들은 학교부적응의 요인으로 밝혀졌다(문은식, 2006; 박성연·강지훈, 2005). 국외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존감, 사회기술, 공격성,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내적 특성과,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수준과 같은 청소년 개인의 학습역량이 중도탈락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Cairns, Cairns and Neckeman, 1989; Finn, 1989; Alexander et al., 2001; Fortin, Marcotte, Potvin, Royer, and Joly, 2006). 학업에 관하여는 객관적 학업성취수준보다는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이 중도탈락에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내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숙·고미선, 2007).

(2) 환경특성 요인

① 가족관계 요인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나 중도탈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들로는 가족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있다.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능력, 교육에 대한 기대의 의사소통 등이 청소년의 중도탈락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조은정·이혜경, 2007; 이정은·조미형, 2007; 강유진·문재우, 2005;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3; 류

경희, 2003; 유성경·이소래, 2001, Fortin et al., 2006; Lagana, 2004; Alexander et al., 2001). 그 중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부모의 지도·감독 능력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중도탈락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또래관계 요인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친구-교사 애착 중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형·최상미·엄태영, 2006). 또래애착은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을 저하시키는가 하면(이정은·조미형, 2007), 반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선미, 2007, Hymel, Rubin, Bowden and LeMare, 2007).

③ 교사와의 관계 요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교사와의 애착관계는 학업성취나 학교적응과는 관계가 있지만(백혜정, 2007; 정규석, 2004, 최지은·신용주, 2003; 유안진 외, 2003)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거나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청소년패널을 이용한 중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교사와의 애착이 영향이 있으나 고등학교가 되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숙·고미선, 2007). 백혜정(2007)의 연구에서도 교사애착은 학교생활흥미와 학업성적과 같은 긍정적인 학교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행동이란 부적응상태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 요인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④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성별과 가족의 경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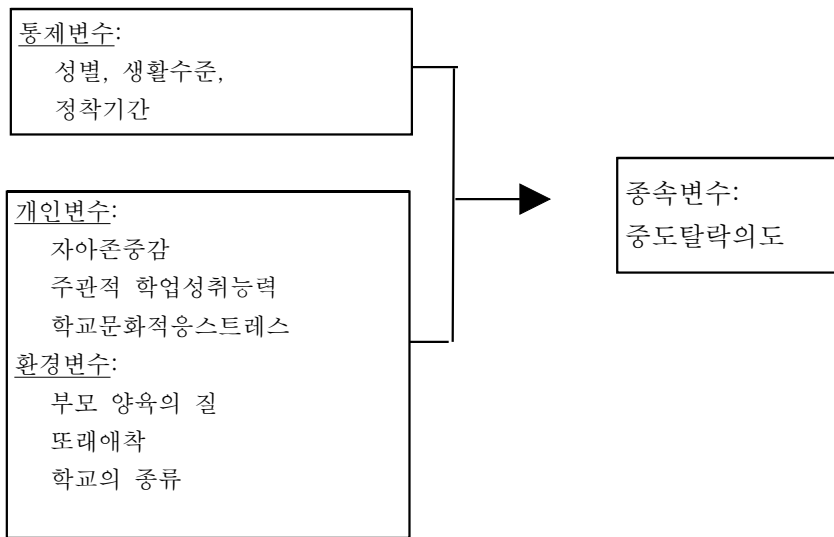
중도탈락행동에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 중도탈락이나 학교 부적응행동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정은·조미형, 2007; Cairns et al., 1989; Alexander et al., 2001; Williams, Davis, Cribbs, Saunders, Williams, 2002, 이정은·조미형, 2007에서 재인용; Lagna, 2004). 특히 국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도탈락문제는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인종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학생의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exander et al., 2001).

가족의 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중도탈락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김준호·안효용·김선에·김선업, 2002, Cairns et al., 1989; Alexander et al., 2001; Fortin et al., 2006).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청소년 학교 중도탈락률이 상류층 가정 자녀의 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lexander et al., 2001).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은 객관적인 수입의 정도보다는 주관적인 가정형편 인식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학교 부적응이나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외, 2002).

3.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행동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중도탈락의도를 학교중도탈락의 대치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학교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가족의 생활수준, 남한 정착기간이란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들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학업 성취능력,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란 개인내적 변수들, 부모양육의 질, 또래 애착,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란 환경변수들이 학교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은 그러한 본 연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북한이탈청소년의 중도탈락의도 영향요인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재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한다. 조사기간인 2007년 1월 현재 일반 중·고등학교 연령(14-20세)에 속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은 총 635명이고, 그 중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총 346명(교육인적자원부, 2007.1)이었다.

기존의 북한이탈청소년연구가 수도권 중심이고,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나 북한이탈 자녀가 밀집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본 연구는 전국적인 표집을 시도하였다.

먼저, 교육청 차원의 협조를 얻어 시,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총 79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무부장/담임교사에게 전화연락을 취하고 조사협조를 요청하여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53명의 재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 소재가 파악된 총 지방거주 재학생의 67%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교육청의 공식적인 협조를 얻을 수 없었던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각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청소년 프로그램, 교육보호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편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확률표집을 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가 아직도 갖는 제한점이라고 하겠으나³⁾ 조사 시점에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의 30~41%에 해당하는 숫자가 참여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개선하였다고 하겠다.⁴⁾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학교 중도탈락 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자경 외(2001)가 자퇴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8개 문항 중에서 중도탈락의도의 강도에 대한 3문항, 계획된 행동의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2문항, 총 5문항만을 선택하였다.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척도의 설문항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사용한 문항에는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해 보았다”라는 막연한 생각부터 “학교를 그만 둘 때 주위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해 보았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를 단계적으로 물었다.

(2) 독립변수

① 부모 양육의 질 척도

부모양육의 질은 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묻는 6문항과 부모의 지도감독 능력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② 또래애착 척도

청소년 패널에서 사용한 또래애착척도로서 친구들과의 친밀감의 정도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애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2008.4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학교에 북한이탈청소년의 73%가 재학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인가, 비인가 대안학교재학생들이 학교의 방침이나, 학생회의 결정으로 인해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대안학교 재학생들을 제외할 때, 본 설문참여자의 50% 수도권 거주자, 50% 기타 지역 거주 비율은 북한이탈청소년 전국분포와 유사하다.

4)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8.4월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 471명이었다. 이는 본 연구가 수행된 2007년 12~2008년 2월의 기간 중 재학인원의 추산의 근거가 된다.

③ 자아 존중감 척도

자아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Rosenberg가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④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Gloria와 Robinson-Kurpius가 개발하였고 정재훈·최혜지가 번안한 Cultural Congruity Scale의 13 문항 중 북한청소년 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해 문화, 사고, 생활습관, 가치관, 정체성의 일치성과 관련한 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공릉복지관 외, 2007). 이 외에 기존의 북한이탈 청소년 연구에서 남한 학교적응과정의 어려움으로 가장 되풀이 되어 언급된 “동급생과 연령 차이”와 “남한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의 두 문항을 연구자가 추가하여 총 7개의 문항으로 남한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질문 문항의 예로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내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가족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달라져가고 있다고 느낀다” “북한출신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등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문화적응의 어려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

⑤ 주관적 학업성취 역량의 인식 척도

청소년 패널에서 사용한 학업성취역량 척도로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기대가 감당하기에 벅차다”, “바라는 대학이나 직장에 갈 수 있다”,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과 3항을 역채점하였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역량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⑥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

재학 중인 학교는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대안학교로 분류하였다. 대안학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0), 중학교(1), 일반고등학교(2), 실업계 고등학교(3)으로 가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3) 통제변수

응답자의 성별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응답자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남한 내 정착기간이 통제변수로 설정되었다. 경제적 수준의 정도는 ‘최상’, ‘상’, ‘중’, ‘하’, ‘최하’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착기간은 개월 수로 측정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척도들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탈청소년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였고, 사회복지 박사과정에 있는 두 사회복지사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주요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2〉 측정도구와 신뢰도

| | 사용 척도 | 출처 | 신뢰도 |
|------|----------|---|-----|
| 종속변수 | 중도탈락의도 | 구자경 외(2001)척도의 수정·재구성 | .94 |
| 독립변수 | 부모 양육의 질 | 청소년 패널 연구.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지도감독 능력 총 10문항 | .89 |
| | 또래 애착 | 청소년 패널 연구. 또래 애착 4문항 | .83 |
| | 자아존중감 |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 .68 |
| | 학교문화적응 | Gloria & Robinson-Kurpius의 척도 중 5문항과 연구자의 2문항으로 재구성 | .75 |
| | 학업성취역량 | 청소년 패널연구. 학업역량 3문항 | .59 |
| | 학교의 종류 | 대안학교(0), 중학교(1), 일반고등(2), 실업고등(3) | |
| 통제변수 | 성별 | 남(1), 여(2) | |
| | 정착기간 | 남한 입국이후 거주기간 | |
| | 가족의 생활수준 | 최하(1), 하(2), 중(3), 상(4), 최상(5) |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서 SPSS 14.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주요 결과 분석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북한이탈청소년 학생 총 126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남학생 67명, 여학생이 59명이었으며 평균 만 연령은 16.8세이었고, 평균 교육연수는 8.3년이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을 경우보다 평균 1.7년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탈북과 3국을 경유하는 이주 과정에 교육의 단절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남한 거주 북한이탈청소년의 75%가 동급생과 2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통계치와 유사한 결과이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지역거주 청소년이 50%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 부산, 인천 등 광역시 거주 청소년응답자들이 22.3%로,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집중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평균 남한거주기간은 36개월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족구조를 보면, 47.6%(60명)가 양부모와 거주하고 있고, 31.0%(39명)가 한부모와 살고 있으며, 응답자의 20.6%(26명)가 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탈북과 남한 유입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나 가족의 상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 '중간'이란 응답이 53.2%(67명), '하'란 응답이 32.5%(41명), '상'이란 응답이 7.9%(10명), '최하'가 5.6%(7명), '최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률이 2007년 현재 67%임을 고려할 때, 61.9%의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의 경제수준이 '중간'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은 이들의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낙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을 보면 65.9%(83명)이 중학생이었고, 19.0%(24명)가 일반고 재학생, 7.1%(9명)이 실업계 고등학생, 7.9%(10명)가 대안학교 재학 중으로 나타나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의 재학상황과 유사한 학제 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126)

| 변수 | 내용 | 빈도(%) | 변수 | 내용 | 빈도(%) |
|--------|-----------------|----------|------|--------|----------|
| 성별 | 남 | 67(53.2) | 가족구조 | 양친부모 | 60(47.6) |
| | 여 | 59(46.8) | | 한부모 | 39(31.0) |
| 연령 | 16.76 (SD=2.33) | | | 양부모/친척 | 26(20.6) |
| 교육연수 | 8.3년 (SD=2.89) | | 경제지위 | 최상 | 1(0.8) |
| 남한거주기간 | 35.9개월 | | | 상 | 10(7.9) |
| 거주지역 | 서울 | 63(50.0) | | 중 | 67(53.2) |
| | 경기 | 6(4.8) | | 하 | 41(32.5) |
| | 인천 | 7(5.6) | 최하 | 7(5.6) | |
| | 부산 | 15(11.9) | 학교유형 | 중학교 | 83(65.9) |
| | 대전 | 12(9.5) | | 인문고등 | 24(19.0) |
| | 충남 | 8(6.3) | | 실업고등 | 9(7.1) |
| | 기타 | 15(11.9) | | 대안학교 | 10(7.9) |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학교중도탈락의도, 독립변수로 설정한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성취역량 인식, 부모양육의 질, 또래애착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4〉와 같다. 조사참여자들의 학교중도탈락의도는 5점 척도에서 1.878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도탈락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 청소년에 따라 중도탈락의도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은 3.579로 5점 척도에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참여자들의 또래 애착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양육의 질에 대한 평가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들의 특성

| 변수 | | 평균 | 표준편차 |
|------|-------------|-------|------|
| 종속변수 | 학교중도탈락의도 | 1.878 | .936 |
| | 자아존중감 | 3.579 | .715 |
| 독립변수 |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 | 2.761 | .592 |
| | 학업성취능력 인식 | 3.042 | .628 |
| | 부모 양육의 질 | 3.301 | .681 |
| | 또래 애착 | 4.127 | .645 |

(1) 주요변인의 집단 간 비교

주요변인특성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조사참여자의 성별이 주요변인 특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 간에 학교성적의 자기 보고에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12$). 〈표 6〉은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지역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북한이탈주민 비 밀집지역) 거주청소년들의 주요변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서울의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은 이들의 지역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유사한 배경의 또래지지체계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기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식, 비공식 지역사회 환경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5〉 주요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

| 변인 | 성별 | 평균 | t검증 |
|-------------|----|-------|-----|
| 학교중도탈락 의도 | 남 | 2.071 | ** |
| | 여 | 1.658 | |
| 자아 존중감 | 남 | 3.512 | |
| | 여 | 3.656 | |
|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 | 남 | 2.802 | |
| | 여 | 2.717 | |
| 부모양육의 질 | 남 | 3.296 | |
| | 여 | 3.309 | |
| 또래 애착 | 남 | 3.423 | |
| | 여 | 3.537 | |
| 학업성취능력 | 남 | 2.995 | |
| | 여 | 3.096 | |

* < .05, **< .01, ***<.001

〈표 6〉 주요변인의 지역 간 비교(서울과 기타지역)

| 변인 | 지역 구분 | 평균 | t검증 |
|-------------|-------|-------|-----|
| 학교중도탈락 의도 | 서울 | 2.038 | * |
| | 기타 | 1.717 | |
| 자아존중감 | 서울 | 3.454 | * |
| | 기타 | 3.704 | |
|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 | 서울 | 2.936 | *** |
| | 기타 | 2.587 | |
| 부모 양육의 질 | 서울 | 3.293 | |
| | 기타 | 3.309 | |
| 또래 애착 | 서울 | 3.338 | ** |
| | 기타 | 3.614 | |
| 학업성취능력 | 서울 | 3.095 | |
| | 기타 | 2.989 | |

* < .05, **< .01, ***<.001

거주 지역에 따른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역 거주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적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중도탈락 의도가 기타지역 거주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는가 하면, 자아 존중감이나 학교 문화적응수준은 지방거주 북한이탈청소년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애착수준도 서울거주 청소년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과 부모의 지도 감독 능력을 평가한 부모양육의 질에 대한 비교에서는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 거주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 양육의 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울지역이 공식, 비공식적 지지 체계가 많아 전반적으로 적응이 쉬울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서울지역 거주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학교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에서 지방거주 청소년들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7〉는 가족구조와 주요변인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친다는 몇몇 선행연구의 결과(Fortin et al., 2006; 김준호 외, 2002)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은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7〉 가족구조 형태와 주요변인 간의 관계

| 변인 | 가족구조 형태 | 평균 | F값 유의수준 | Scheffe's 사후 검증 |
|-------------|---------|-------|---------|--------------------|
| 학교중도탈락 의도 | 양친부모 | 1.870 | .807 | |
| | 한부모 | 1.959 | | |
| | 양부모/친척 | 1.807 | | |
| 자아 존중감 | 양친부모 | 3.576 | .691 | |
| | 한부모 | 3.628 | | |
| | 양부모/친척 | 3.473 | | |
|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 | 양친부모 | 2.688 | .258 | |
| | 한부모 | 2.795 | | |
| | 양부모/친척 | 2.912 | | |
| 부모양육의 질 | 양친부모 | 3.265 | .737 | |
| | 한부모 | 3.364 | | |
| | 양부모/친척 | 3.254 | | |
| 또래 애착 | 양부모/친척 | 3.439 | .653 | |
| | 한부모 | 3.573 | | |
| | 양부모/친척 | 3.397 | | |
| 학업성취능력 | 양부모/친척 | 3.014 | .695 | |
| | 한부모 | 3.045 | | |
| | 양부모/친척 | 3.212 | | |

〈표 8〉은 주요변인의 학교유형별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학교의 정책과 운영 방식, 학업 내용,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학교관련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대안학교의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안학교 학생들이 중도탈락의도가 가장 높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일반학교의 대안으로 설립된 대안학교 학생들이 오히려 문화적 적응스트레스나 중도탈락의도가 높다는 것은 좀 놀라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이미 이들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나 학교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8〉 주요변인의 학교유형별 비교

| 변인 | 학교유형 | 평균 | F값 유의수준 | Scheffe's 사후검증 |
|-------------|--------|-------|---------|----------------|
| 학교 중도탈락 의도 | 중등 a | 1.848 | .095 | b<c |
| | 일반고등 b | 1.767 | | |
| | 실업고등 c | 2.556 | | |
| | 대안학교 d | 1.780 | | |
| 자아존중감 | 중등 | 3.597 | .986 | |
| | 일반고등 | 3.550 | | |
| | 실업고등 | 3.544 | | |
| | 대안학교 | 3.530 | | |
|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 | 중등 a | 2.705 | .080 | b<d |
| | 일반고등 b | 2.701 | | |
| | 실업고등 c | 3.032 | | |
| | 대안학교 d | 3.129 | | |
| 부모 양육의 질 | 중등 | 3.287 | .555 | |
| | 일반고등 | 3.371 | | |
| | 실업고등 | 3.500 | | |
| | 대안학교 | 3.080 | | |
| 또래 애착 | 중등 | 3.454 | .794 | |
| | 일반고등 | 3.500 | | |
| | 실업고등 | 3.519 | | |
| | 대안학교 | 3.566 | | |
| 학업성취능력 | 중등 | 2.979 | .230 | |
| | 일반고등 | 3.263 | | |
| | 실업고등 | 2.926 | | |
| | 대안학교 | 3.133 | | |

〈표 9〉는 주요변인의 가족경제수준별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되게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수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학교 중도탈락 의도나 주관적 학업성취능력 인식에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요변인의 가족생활수준별 비교

| 변인 | 가족경제수준 | 평균 | F값 유의수준 | Scheffe's 사후 검증 |
|-------------|--------|-------|---------|-----------------|
| 학교 중도탈락 의도 | 상 | 1.618 | .948 | |
| | 중 | 1.830 | | |
| | 하 | 2.004 | | |
| 자아존중감 | 상 | 3.746 | .681 | |
| | 중 | 3.584 | | |
| | 하 | 3.535 | | |
|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 | 상 a | 2.389 | .050 | a<c |
| | 중 b | 2.748 | | |
| | 하 c | 2.866 | | |
| 부모 양육의 질 | 상 | 3.436 | .747 | |
| | 중 | 3.270 | | |
| | 하 | 3.315 | | |
| 또래 애착 | 상 | 3.212 | .367 | |
| | 중 | 3.522 | | |
| | 하 | 3.472 | | |
| 학업성취능력 | 상 | 3.014 | .638 | |
| | 중 | 3.035 | | |
| | 하 | 3.212 | | |

3)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되는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표-10〉에 제시하고 있다. 자아존중감($r = -.450, p = .001$),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r = .402, p = .001$), 또래애착($r = -.291, p = .001$)은 중도탈락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중도탈락의도는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그 방향성도 예측되었던 구도와 일관되었다. 학교중도탈락의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r = -.344, p = .001$)를 보여주며, 또래애착($r = .349, p = .001$), 학업성취역량($r = .181, p = .0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의 질은 학업성취역량($r = .275, p = .001$)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회귀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r = .80$ 이상)로 인한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관관계 계수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다(유태균, 2008).

〈표 10〉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n=126)

| | I | II | III | IV | V | VI |
|----------|---------|---------|---------|--------|------|----|
| 학교중도탈락의도 | | | | | | |
| 자아존중감 | -.450**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 .402** | -.344** | | | | |
| 학업성취역량 | .081 | .181* | .029 | | | |
| 부모양육의 질 | -.010 | .135 | -.144 | .275** | | |
| 또래 애착 | -.291** | .349** | -.275** | .081 | .118 | |

<.01, *<.001

4) 학교중도탈락의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표 11〉은 학교중도탈락의도에 대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수가 종속변수인 학교중도탈락의도 변량의 3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델은 유의수준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정착기간, 가족의 생활수준), 개인 내적 특성(자아존중감,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성취역량인식), 환경특성(부모양육의 질, 또래 애착, 학교의 종류)의 변인들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정시켰을 때,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성별, 자아존중감,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성취역량인식, 학교의 종류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등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이 남성일 때 중도탈락의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49$),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중도탈락의 위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beta = -.355, p = .00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중도탈락의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도탈락의 위험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인은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0, p = .000$).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중도탈락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은 대안학교 재학생들과 비교할 때, 학교 중도탈락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4, p = .03$).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재학여부는 학교중도탈락 여부와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자신의 학업성취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학교중도탈락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1, p = .04$).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의 정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착기간, 가정의 생활수준은 학교중도탈락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의 질 또한 학교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 외에 중요한 관계로서 또래 애착수준도 마찬가지로 학교중도탈락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위험은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나, 정착기간,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적 변인보다는 자아존중감,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성취 역량인식,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특성 중에서는 학교의 종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학교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교중도탈락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 변인 | 표준화계수(β) | t | 유의확률 |
|------------|--------------------------|--------|------|
| 성별 | -.149 | -1.969 | .05 |
| 정착기간 | .108 | 1.371 | .17 |
| 가족의 생활수준 | -.073 | 1.461 | .35 |
| 자아존중감 | -.355 | -4.262 | .00 |
|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 | .250 | .341 | .00 |
| 주관적 학업성취능력 | -.171 | 2.120 | .04 |
| 학교의 종류* | | | |
| 중학교(1) | .118 | .869 | .39 |
| 일반고등학교(2) | .003 | .024 | .98 |
| 실업고등학교(3) | .214 | 2.146 | .03 |
| 부모양육의 질 | .027 | .341 | .73 |
| 또래 애착수준 | -.094 | -1.156 | .25 |
| 사례 수 | 126 | | |
| | F=7.004(df=11) | | |
| | adjusted R^2 = .324*** | | |

* 대안학교 기준

5.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높은 학교중도탈락이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영향관계의 기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기여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변인들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개인 내적변인과 환경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때, 일반청소년들과는 달리 부모양육의 질, 또래관계,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라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이 이들의 학교 중도탈락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밝혀냈다. 또 이들이 자신의 학업성취역량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이들의 학교중도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족경제가 주요 영향요인이 아닌 이유로는 북한이탈주

민의 67%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기에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크게 없다는 현실에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모와의 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에서나 이주과정에서 부모와 이별기간이 많았다는 사실과, 북한체제하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감 형성에 장애요소가 많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주요요인들을 보여줌으로써 학교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개입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이란 개인내적 특성들이 중도탈락의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개입전략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첫째, 심리·정신적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스크리닝이 필요하며,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조기개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심리·정신적 문제는 하나원 재원 기간 동안에 일차적인 스크리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청소년들의 정서적 적응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업성취역량 인식이 자기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도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다양한 교육지원서비스는 학교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적절한 개입이 될 것이다. 남한 유입초기에 1:1의 교육지원 서비스, 사교육 바우처 제도, 안정적인 멘토링/튜토링 서비스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제안되고 있는 개입 방안들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남한 문화의 적응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겠다. 첫째, 남한 학교적응초기에는 북한이탈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 간에 동일문화집단 안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통해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남한 학교 적응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처가 되게 한다. 둘째, 학교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 되는 남한 또래집단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돕기 위하여 사회기술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기술훈련은 남한학생들과의 혼성으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 스포츠나 여가활동 속에서 사회기술의 현장학습(in vivo interven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문화와 사회기술 훈련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또래지지기반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이들이 접촉하는 남한청소년들의 편견과 차별감소, 문화적 민감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시민교육의 참여자/기여자로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삶의 경험이 장애가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한다. 다원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완화노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통해 역량강화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에 관한 연극, 문학, 영상제작물 등의 활동들이 시민교육의 도구적 매체로 활용되면서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자아존중감의 회복의 기회이자 문화적 적응과정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최근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학교배치 기준을 학업능력이 아니라 연령으로 변경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이들의 자존감과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

으로는 이미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1:1 멘토 교사제나 교육보호담당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 거주 청소년들이 중도탈락의도,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또래 애착에서 모두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지방에서 삶이 수도권보다는 덜 경쟁적이고, 적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숫자로 인해 또래로부터 좀 더 지지적인 반응을 얻고, 멘토 교사제도와 같은 밀착된 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데 있겠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탈청소년들 숫자가 많은 수도권 학교에서는 또래집단으로부터 편견이나 차별 경험과 갈등상황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면 교육보호담당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학생의 숫자는 훨씬 많아서 이들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학사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역할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서 적응에 실패할 경우에 대안적 교육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대안학교들을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정착 초기에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준비시키는 디딤돌 학교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안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낮은 학생 대 교사 수, 작은 규모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들 청소년들에게 남한의 학제, 교과내용과 정서, 사회, 문화적 적응과정을 돕는데 좀 더 개별화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속 연구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정규, 비정규 대안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 영역, 각각 교육제도가 갖는 한계점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에 좀 더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수행되었으나 연구의 한계점도 있다. 첫째는 기존의 북한이탈청소년 연구가 수도권 중심, 대안학교나 초등학교 중심의 편의표집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무작위표집을 할 수 없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사용된 척도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언어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또 설문지를 짧게 하기 위하여 전체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어, 연구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하여야 하며, 일반화에 한계로 지적하겠다. 후속연구에서 척도의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강유진·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 제41호: 283-315.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 정착지원센터. 2007. 『노원구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구자경·홍지영·장유진. 2001. 『청소년의 자퇴 욕구 실태와 관련 특성 연구.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pp. 1-54.
- 권순용·양연숙. 2007.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학업동기,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115-129.
- 금명자·권해수·이지영·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길은배·문성호. 2003.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 김금미·정해숙·정경아. 2007. “공무원의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72(1): 189-223.
- 김미숙. 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선숙·고미선. 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연희·조영아·유시은. 2009.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특성연구: 남한빈곤층과의 비교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1(1): 195-218.
- 김준호·안호용·김선애·김선업. 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 제35호: 225-267.
- 대검찰청. 2000. 『2000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류경희.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 문성호. 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 목지의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7(1): 5-17.
- 문은식. 2006.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0(2): 405-423.
- 박성연·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윤숙·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박현선.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195-216.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에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양순미·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9호 통권 187호: 121-134.
- 유기효·방은령·한유진. 2004.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 초기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85-196.
- 유선미. 2007. “청각장애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 유성경·이소래. 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유태균. 2008.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기초원리』 공동체.
- 윤옥경. 2008.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연구』 38: 107-138.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 연구』 35(6): 175-224.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정은·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47호: 79-102.
- 이향규. 2006. “새터민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과제”. 『교육비평』 가을-겨울, 제 21호.
- 이훈진. 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창호. 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4-252.
- 정병호. 2006. “탈북민민 문제의 탈정치적 국제협력 방안”. 『지역사회학』 7(2): 69-92.
- 정병호·양계민·이향규·임후남·황순택. 2006.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교육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경기도교육청.
-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209-239.
- 정향진. 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 제1호: 81-111.
- 조미형·최상미·엄태영. 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 조사 연구』 15: 81-97.
- 조은정·이혜경. 2007. “청소년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학 연구』 14(4): 59-80.
- 최지은·신용우.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통일부. 2007.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http://www.mest.go.kr/>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 Alexander, K. and D. R. Entwisle and N. S. Kabbani. 2001. *Teachers College Record* 103(5): 760-822.
- Andriessen, I., K. Phalet. 2002. “Acculturation and school success: a study among minority youth in the Netherlands.” *Intercultural Education* 13(1): 21-36.
- Bhattacharya, G. 2000. “The school adjustment of South Asi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ce* 35(137): 77-85.
- Beiser, B. and I. Hyman. 1997.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in Al-Issa, I. and Tousignant, M.(Eds.) *Ethnicity, Immigration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Blair, R. 2000.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and major depression among Cambodian refugees in Utah.” *Health and Social Work* 25(1): 23-30.
- Brooks-Gunn, J., G. Guo, and F. Furstenberg Jr. 1993. “Who drops out and who continues, beyond high school? A 20 year follow-up of Black urban youth.” *Journal of Research and Adolescence* 3(3): 271-294.
- Cairns, R. B., B. D. Cairns, and H. J. Neckerman. 1989. “Growth and aggression: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 Dupper, D. and K. S. Davis. 2004.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 Overlooked Factor in School Dropout.”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9(1/2): 179-193
- Donnellan, M., K. Trzesniewski, R. Robins, T. Moffitt and A. Caspi.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6(4): 328-335.
- Elmers, M., G. Pike. 1997. “Minority and nonminority adjustment to college: differences or

- similariti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8(1): 77-97.
- Fife-Schaw, C., P. Sheeran, and P. Norman. 2007. "Simulating behaviour change intervention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mpacts on intention and ac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43-68.
- Finn, J. 1989. "Withdrawing from school."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96:131-134.
- Fortin, L. D. Marcotte, P. Potvin, E. Royer and J. Joly. 2006. "Typology of students at risk of dropping out of school: Description by personal, family and school factor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1(4): 363-383.
- Goldberg, M. 1999. "Truancy and dropout among Cambodian students: results from a comprehensive high school," *Social Work Education* 21(1): 49-63.
- Hymel, S., K. Rubin, L. Rowden and L. LeMare.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aplan, C., S. Turner and L. Badger. 2007. "Hispanic adolescent girls' attitudes toward school."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4(2): 173-193.
- Lagna, M. 2004. "Protective Factors for Inner-City Adolescents at Risk of School Dropout: Family Factors and Social Support,"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6(4): 211-219.
- Lee, E. 1988. "Cultural factors in working with Southeast Asi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1:167-179.
- Nesman, T. 2007. "A participatory study of school dropout and behavioral health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34(4): 414-430.
- Newman, B., M. Myers, P. Newman, B. Lohman, V. Smith. 2000. "The transition to high school for academically promising, urban, low-income African American youth." *Adolescence* 35(137): 45-66.
- Richman, J., G. Bowen, and M. Wooley. 2004. School failure: An ecological-interactional-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 Rubin, K., K. Dwyer, A. Kim, K. Burgess, and L. Rose-Krasner. 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4): 326-356.
- Rumberger, R. 2004. Why students drop out of school(pp. 131-155). In Gary Orfield (Ed.), *Dropouts in America: Confronting the graduation rate crisis*.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 Silvan, A., L. Koch, C. Baier, M. Adiga. 1999. "Refugee youth at risk: a quest for rational policy." *Children's Services: Social Policy, Research, and Practice* 2(3):139-158.
- Sheeran, P. and S. Orbell. 1999. "Implementation intentions and repeated behavior: augmenting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49-369.
- Vallerand, R. M. Fortier, and F. Guay.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161-1176.
- Wallitt, R. 2008. "Cambodian invisibility: students lost between the "Achievement gap" and "the model minority." *Multicultural Perspectives* 10(1): 3-9.

Factors Affecting School Drop-out Intention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Kim, Yeun-Hee
(Daegu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chool drop-ou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to generate recommend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the resettlem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to ameliorate the high school drop-out rate among North Korean refugee youth.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quality of parenting practice, peer attachment and the kind of school a youngster attend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respect and acculturation stress level, and academic efficacy on the school drop-out intention. Gender, duration of stay in Korea, family economic status were established as control variables. The drop-out intention was used as a proxy for drop-out behavior.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self-respect and acculturation stress, academic efficacy were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wherea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quality of parenting, peer attachment did not exert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rop-out intention. At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for research, social work practice and the government policies were discussed.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youth, school drop-out, drop-out intention

[논문 접수일: 09. 07. 24, 심사일: 09. 08. 14, 게재 확정일: 09. 09. 12]